

연중 제3주일(사회복지주일)

제1독서: 요나 3,1-5,10

제2독서: 1고린 7,2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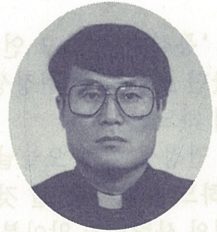
복 음: 마르 1,14-20

순정이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르 1,17)

강론

함께 하는 삶



정양현 신부 / 사회사목국장

정축년 새해 그리스도의 해가 밝아 온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우리는 성탄의 기쁨 속에서 한 해를 정리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말미와 시작이 성탄의 축제 속에 지내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의미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살아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보다 낮은 곳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려 생활하셨으며,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함께 하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보다 가난해져야 되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 신문 지상에 이런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수녀님들이 극빈자들을 위해 성요셉의 집이라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그 급식소 앞에 누가 갖다 놓았는지 알 수 없는 생활용품들이 매일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쌀, 콩나물 시루, 동태상자, 야채 등 여러 가지 부식거리와 비누, 치약 등 생활용품들이 다양하게, 산타 할아버지 선물처럼 한 보따리씩 놓여 있었습니다. 수녀님들은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침 일찍 감쪽같이 갖다 놓는 바람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어서 선물을 베푸는 그 사람을 굳이 알아 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짓궂은 기자들이 드디어 알아 내어 신문 지상에 보도하고 말았습니다. 헌데 놀라운게도 그 동안 계속해서 그 착한 일을 해 온 사람은 부근 시장 노점에서 채소나 과일 장사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한 때는 가난하여 극빈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사코 그들은 얼굴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졌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생활이란 함께 하는 삶이며 나누는 생활. 즉 성탄의 삶입니다.

오늘 또 다시 사회복지주일을 맞이 했습니다. 2차 현금부터 생각하며 슬그머니 호주머니 사정을 감안합니다. 그러나 결코 일회적으로 해치우면서 마음의 위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전해 줍니다. 그물과 배는 그들에게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고, 함께 하는 삶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하느님

‘몽실언니’라고 언젠가 텔레비전 연속극으로 나왔던 소설을 쓴 권정생 씨의 산문집 이름이 「우리들의 하느님」이다.

권정생 씨는 오늘날 마지막으로 남은 몇 안 되는 「하느님의 사람」일 것이다. 그 책에는 왜 그가 하느님의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우선 그 책을 내놓은 출판사부터 소개해보자. ‘녹색평론사’라고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데 대단한 출판사다.

애초에 이름부터가 그렇듯이 「녹색평론」이라는 격월간 잡지를 펴내고 있다. 1991년 가을에 창간호를 냈고, “사람과 사람, 사람이 자연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그들의 뜻이다.

재생용지(누르고 거칠지만 무게가 가볍다)만을 쓰는 녹색평론사는 지난해 「오래된 미래」라는 라다 크라는(실은 인도 지배를 받고 있는 행정구역) 티베트 문화지역의 소개서를 냈는데 이 번 권정생 씨의 「우리들의 하느님」도 재생용지로 되어 있다.

재생용지는 출판업계에서 사실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귀찮은 일거리도 많을 뿐 아니라 책으로 꾸며 내놓고 보면 지나치게 소박하고 색깔도 빛이 안 나서 모두 꺼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재생용지를 쓰는 곳은 이 녹색평론사 뿐이고, 도서출판 공동선에서 내는 격월간지 「공동선」이 한 권의 일부 몇 십 쪽만을 재생용지로 내고 있다. 「성서와 함께」도 언젠가 그렇게 하다가 재생용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만 두겠다고 하고 보통 종이로 낸다.

녹색평론사는 가톨릭 출판사도 아니고 출판사 운영자가 신자인 것도 아니면서도 우리보다 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부끄러운 일이다.

권정생 씨의 「우리들의 하느님」을 읽노라면 부끄러워서 그만 죽을 지경이 되지만, 그 책 안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실천을 촉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히 하느님을 믿는 이가 할 일

정인섭(안드레아)/평화동 천주교회

들을 짚어가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하고 뉘우치게 된다.

권정생 씨의 그 책은 서점에서 팔지 않는다. 「오래된 미래」라는 책도 서점에 없다. 서점들이 재생용지로 만든 책은 취급을 않는다는 것이다. 무슨 출판사와 서점간의 안 보이는 담합이나 계약 같은 것이 재생용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가 보다.

세상은 왜 하느님께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만 할까? 왜 자꾸만 못되지려고만 할까? 세상은 왜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거시적 역사학자들 말과는 달리 어두워만지고 있을까?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느님께로 모두 얼굴을 돌릴 수는 없을까?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을까?

남보다 조금 덜 높이 오르고, 이웃보다 조금 덜 입고 먹고, 하느님이 어디 계신가 더 좀 살피고,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데 어떤 모양으로 계시길래 나는 지금 이런가 생각도 더 좀 하며 하루씩 한나절씩 살 수는 없을까?

성서를 읽고 더 좀 말씀대로 살 수는 없을까?

권정생 씨는 이런 물음들을 「우리들의 하느님」에서 하나씩 이야기 해 준다.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 잊어버려서 그렇다고…….(녹색평론사 전화번호는 053-742-0666, 이 번호로 전화하면 책을 보내준다.)

숲정이 산책



어쩔수 없이...

주님이 계시기에

나를 봉헌하며...



김시몬 부제 / 금암동 천주교회

다른 사람에게 그냥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수녀님의 간절한 부탁에 그냥 거절만 할 수가 없었다. 글재주가 없는 것은 둘째치고 우선은 “나는 이런 사람ियो”라고 말하는 식의 글을 쓴다는 것이 여간 쑥스러운 것이 아니다. 수녀님의 원고 부탁에 “예, 그렇게 해 보지요”라고 대답하는 순간 부터 충분히 예상은 한 일이었지만 막상 이야기를 끄집어 내려니까 좀처럼 그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내가 나의 신앙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등학교 시절부터가 아닐까 싶다. 사실 나는 태중교우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태중교우이기는 하더라도 나의 가정은 그렇게 뿌리가 깊은 구교우의 가정도 아니다. 어머님께서 처녀시절에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그보다 조금 더 늦게 교회에 입문하셨다. 그래도 부모님 두 분의 신앙만큼은 매우 깊으셨던지 첫아들과 둘째인 나의 이름을 세례명 그대로 호적에 올려 놓으셨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주일학교에 가지 않으면 밥 먹을 자격도 없다는 협박 반, 애원 반의 말씀으로 형과 나를 주일학교에 보내시곤 하셨던 기억이난다. 이러한 부모님의 열성어린 신앙의 조기 교육 덕분에인지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 얼마되지 않아 하느님께서 나에게 작은 성소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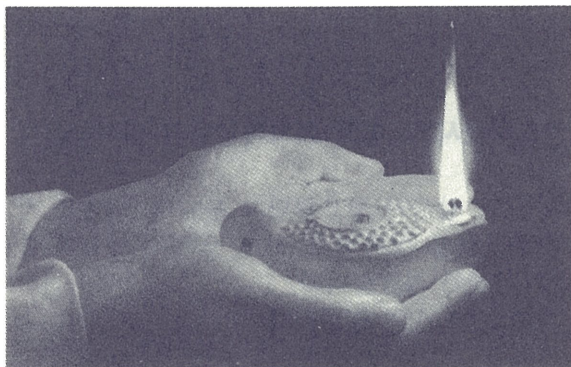
중앙 성당에서 고등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때는 신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선교사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신부님 한 분을 만나게 된 것이다. “신부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나의 질문에

사제성소에 대한 관심을 갖는 내가 기특하게 보였는지 눈물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자상하게 일러주시던 그 분의 눈망울을 지금도 여전히 잊지 못한다. 그 이후로 그분께서는 나를 직접 데리고 교구 성소자 모임에 가 주시기도 하셨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신부가 꼭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2년쯤 지나고서 그분께서 신학교에서 보내 주신 한 통의 격려엽서를 받게 되었는데, 이 엽서가 바로 나의 막연했던 성소의 꿈을 실천으로 이끌어 준 계기가 되어 주었다. 신학교에 가게 된 동기가 이 엽서 한 통 때문이라고만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신학교에 가게 되었다.

신학교에서의 생활은 그 자체로 기쁨이었다. 나는 진정으로 공동체에서 느껴지는 참 평화와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던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과의 형제애 안에서,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죽여야만 하는 희생을 통한 신앙적 삶 안에서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있음을 깊이 체험할 수도 있었다. 또한 어려웠던 몇 번의 고비를 통해 주님께서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도 비로소 이루어야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참으로 가난하고 억눌리며 소외당하는 많은 도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과도 삶을 나누는 기쁨이 되었던 3, 4학년 때의 현장체험은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때 나를 사로잡았던 말씀이 현장체험의 대주제이기도 하였던 루가복음에 나오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는 말씀이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제가 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심어 주셨던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은 내가 사제가 되어 지고야 할 십자가로 여기며, 평생 동안을 살아가야만 할 나의 서품모토가 되었다. 이토록 주님께서 직접 보여 주심으로써 나를 가르쳐 주셨고, 나의 성소를 훌륭하게 가꾸어 주셨다.

주님! 나의 몸과 마음을 당신께 기꺼이 봉헌하나이다.



특집

경 1997년도 전주교구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에 힘입어 저희 교구에서는 8명의 부제가 사제로, 4명의 신학생이 부제로 서품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함께 하시어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제 서품자들의 첫미사 일정과 좌우명으로 택한 성구 -



송호석(실베스텔)

“주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마태 20,33)

이웃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뵈지 못하고, 진실을 진실대로 보지 못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을 알아뵈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미사 : 1월 31일(금) 오전 10시30분, 조촌동 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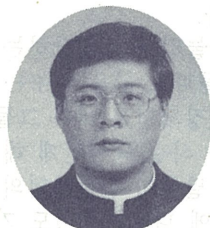


신원철(안토니오)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요한 14,9)

철저하게 아버지 하느님의 뜻만을 따르며 사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을 보여 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첫미사 : 1월31일(금) 오전 10시30분, 어양동 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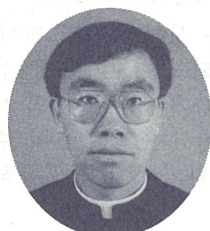


김시몬(시몬)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루가 10,37)

주님, 당신의 온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 주신 그대로 저도 모든 사람들에게 애덕을 실천하는 착하 사마리아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 나도 가서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다운 이웃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첫미사 : 1월 31일(금) 오전 10시30분, 금암동 천주교회



서철승(가롤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1데살 5,16-18)

주님이 함께 살면서 기쁨과 기도, 감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님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사제, 긍정적 사고와 함께 기도의 삶, 감사의 삶을 사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첫미사 : 1월31일(금) 오전 10시30분, 진안 천주교회

사제·부제 서품식 **축**

일시 : 1997년 1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천주교 전주교구 중앙 성당

주례 : 이병호(빈첸시오) 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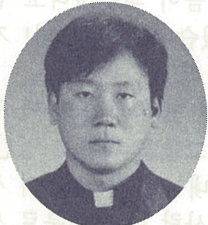
부제서품자

김병희(요셉) 송천동 천주교회

정식수(마티아) 고창 천주교회

김형수(바오로) 쥬정이 천주교회

유진영(바오로) 효자동 천주교회



강 호(가브리엘)

“항상 깨어 있어라.”(마태 25,13)

급박히 변해가는 세상 안에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가장 어울리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 제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준비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첫미사 : 1월 31일(금) 오전 10시30분, 팔마 천주교회



곽종남(세자요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루가 22, 42)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은 어떤 처지에서든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것처럼 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삶의 전부를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자 합니다.

첫미사 : 1월31일(금) 오전 10시30분, 송천동 천주교회



이원철(요한보스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1데살 5,16-18)

참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즉 기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느낍니다. 참 기쁨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미사 : 1월 31일(금) 오전 10시30분, 중앙 천주교회



김원중(안토니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야고 2,26)

기도, 사랑, 나눔, 친교, 봉사 등 이 모든 것은 각자의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 주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제가 되고자 합니다.

첫미사 : 1월31일(금) 오전 10시30분, 신동 천주교회

사목 단상

예수님! 이제 제 그물을 바라보게 하소서



최종수 신부/금암동 천주교회

나보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벌써 일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일 년 동안 사람 낚는 어부로서 참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의 사랑을 낚는 제자는 물론이고 당신의 사랑을 전해 주는 제자는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첫공생활에서 병든 사람들,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예수님! 저의 첫공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1년의 사제 생활은 참으로 당신의 첫공생활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저 사람을 낚기 위해 바쁘게 그물을 던졌을 뿐입니다. 매일 이 사람 저 사람, 이 단체 저 단체 사람들을 바쁘게 만났을 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말씀을 낚는 어부로도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사랑의 고기를 낚기 위해 기도의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어부가 지치지 않고 고기를 많이 낚기 위해 잘 먹어야 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바다에 나갈 수 없기에 다른 어부들과 출항의 시간, 부식, 선박점검, 그물수리, 물때 등의 의견을 조정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더 많은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사람을 낚기 위해 사람을 낚는 시간보다 더 많은 준비시간을 가져야 함을 이제야 알 것도 같습니다. 먼저 그물을 손질해야 함

을 알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말은 일이 너무 많다고 게을리 했습니다. 예수님! 저의 그물은 얼마나 찢어지고 구멍이 났습니까?

어부는 바다로 나가기 전에 먼저 배를 물에 정박해 놓고 그물을 씻고 구멍난 그물을 꿰매고 엉킨 부분은 풀어 주고 오물을 걷어내는 그물 점검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로 세상 속으로 가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보잘 것없는 사람들을 향한 열정을 3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겸손과 가난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준비하시고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난 후에도 다음날의 전교여행을 위해 밤을 세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세상이라는 바다로 가기 전에 저의 구멍난 그물을 꿰매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 내 욕망으로 찢어진..., 내 교만으로 올이 빠진..., 내 게으름으로 삭어가는 영혼의 그물을..., 그리고 지금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그물을 던지는..., 불의와 억압의 세상에 정의와 평화의 그물을 던지는...

예수님! 이제 제 그물을 바라보게 하소서.

올이 빠진..., 구멍난..., 찢어진..., 엉켜버린..., 오물이 달린 그물을.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세상의 그물을 손질하게 하소서. 아멘!

민속 떡집

맞춤떡·패백전문
이 종 술(미 카 엘)
박 양 레(미카엘라)
전주교 옆 남부시장 입구
☎ 84 - 4427

풍년꽃집

근조, 결혼, 회갑, 생일, 개업
학교, 동서양란, 화분, 꽃바구니
배달해 드립니다.
강 손 자(세라피나)
☎ 84 - 8672, 85-6365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ル간,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지도 담당
김태우(알폰소)·황진숙(안젤라)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 88 - 7717~8

015팔달통신·017

전북이동통신 팔달 대리점
신세기통신 팔달 대리점
오 현 종(스테파노)
유 미 숙(마르타)
전주 오거리 국민은행 옆
☎ 84 - 0015~6

교 소 식

❖ 사제 및 부제 서품식

· 때 : 1월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중앙 성당

· 주례 : 이병호 주교

· 서품예정자

사제품(8명)

송호석(실베스텔) 조촌동 본당

신원철(안토니오) 어양동 본당

김시몬(시몬) 금암 본당

서철승(가롤로) 진안 본당

강 호(가브리엘) 팔마 본당

곽종남(세자요한) 송천동 본당

이원철(요한보스코) 중앙 성당

김원중(안토니오) 신동 본당

부제품(4명)

김병희(요셉) 송천동 본당

정식수(마티아) 고창 본당

김형수(바오로) 숲정이 본당

유진영(바오로) 효자동 본당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대상 : 젊은이

· 회비 : 45,000원

· 문의 및 접수 : ☎ 85-0041(교육국)

85-3637

❖ 가톨릭문우회

· 때 : 2월1일(토) 오후3시

· 장소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성모기사회

· 때 : 2월1일(토) 오전10시

· 장소 : 효자동 성당

❖ 기억할 사제

· 29일 이상호(아우구스티노) 신부 13

주기

❖ 축하! 영명

· 31일(성요한보스코) 강명구, 박인근,

이원철 신부님

❖ 제18차 선택 주말

· 때 : 1월31일~2월2일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더운물은 알맞게 사용합시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수기의 온도를 60℃에 맞추어 두고 있으나 그 온도는 필요 이상으로 뜨거운 상태입니다. 물을 지나치게 가열하면 에너지가 낭비될 뿐 아니라 온수탱크의 수명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온수기의 온도를 5℃ 낮출 때마다 에너지의 사용을 6%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소비되는 전체 에너지의 20% 가량이 물을 데우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 목조에 더운물을 받아 목욕하는 것보다 샤워기를 이용하면 온수 사용량의 절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온수기의 온도를 55℃에 맞추어 놓고 사용합시다.

- 샤워시 물 사용시간을 5분 정도로 줄이면 18~35ℓ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목욕탕에서 머리와 몸에 비누칠 하는 동안 샤워기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버릇을 들입니다.

(주)이삭온돌침대「파워스톤」

수맥방지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인전통청 전자파실험필,EMI)
전남북총판

박천운(베드로),임선재(데레사)

☎ (0652) 251-9836~7

호출기 015-675-9824

휴대폰 011-651-7124

K랜드 눈 썰매장

· 순수와 꿈의 나라
· 주간(오전10시~오후4시)
야간(오후5시~오후9시)

윤 병 순(오 셉)

김 혜 경(레지나)

금구→원평 중간 목우촌 앞

☎ (0658) 42 - 0365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소피정

· 일시 : 2월1일(토)~2일(일) 오후4시

· 장소 : 사랑의 씨튼 수녀회 본원(광주)

· 문의 : (062) 571 - 3004

성소상담 수시가능

· 회비 : 10,000원

그리스도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 매주 첫주토요일 오후2시(중·고생)
매주 첫주목요일 오후2시(대학생·일반)

· 장소 : 은평의 마을 내 수도원

· 문의 : (02) 357 - 9785 사제관

359 - 2927 사무실

요심이 (1223) 김병오



교 사 초 빙

- 과목 : 수학과 1명, 과학(물리)과 1명
- 자격 :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구비서류 : 이력서, 교원자격증원본, 호적등본, 고교 및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 1통 · 제출처 : 전주 해성중학교 서무과(☎ 226-0506) · 제출기한 : 2월4일

학교법인 해성학원

서 울 의 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 75 - 0550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너희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25,40)

1. 모임 안내 : ①편집부, 전례부-교증미사 후
②사랑의 다리, 성소후원회-매일 셋째, 넷째 주일
③성심부녀회-29일(수) 전 10시
④사목회 상임위원회-31일(금) 후 7시
⑤레지오 꾸리아-다음주일 교증미사 후
2. 사회복지 주일 : 오늘 해외원조를 위한 2차헌금 있음.
3.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 27일(월)~28일(화), 내장산
참가비-10,000원
4. 가정 방문 : 29일(수) 오전 5반
5. 참회예절 : 29일(수) 저녁미사중에 있음.
6. 병자방문 : 31일(금) 후 2시부터
7. 성서교실 : 매주 목요일 전 10시에 있음
8. 주의 봉헌 축일 준비 : 제대 꽃과 초를 봉헌받습니다.
9. 복사단 모집 : 초, 중학교 남학생 입단 바람.
10. 설 합동 위령미사 : 사무실에서 접수 받음
11. 금주 전례 : 해설-박수환, 독서-김준수(야교보) 부부
예물봉헌-변대현(사도 요한) 가정
12. 차주 전례 : 해설-이홍자, 독서-김길환(스테파노) 부부
예물봉헌-김용권(요한) 가정

□지남주 봉헌금 : 1,310,850원 □교무금 : 1,939,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태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춘 웅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르코 1,17)

- ◎오늘 : 사회복지주일 2차헌금
1. 금주 모임 : 청년공동체 정기총회-저녁미사 후, 4회의실
 2. 주간 모임 : 엠마우스회-29일(수) 후 7시, 4회의실
 3. 차주 모임 : 요아킴회, 안나회-공식미사 후
※차주-빈첸시오회비 납부일
 4. 주의 봉헌 축일(차주) : 제대초 봉헌은 반장 또는 사무실에 접수
 5. 예비자 교리 : 화요일(직장남)-후 8시, 4회의실
목요일(주부반)-전 10시, 4회의실
※많은 예비자들을 하느님 앞에 인도합니다.(31일 접수 마감)
 6. 유아 세례 : 30일(목) 후 7시 30분 ※28일(화)까지 신청바람.
 7. 신영세자 첫 고백성사 : 30일(목) 후 7시, 성당
 8. 설 합동 위령미사 : 선영을 위한 미사예물을 사무실에 접수
 9. 서신신협 5차 정기총회 : 오늘 공식미사 후, 많은 참석 바람.
 10. 전입가정 환영 : 유영빈(다두) T.75-2705, 2구역 2반(실로암제과)
김범석(요셉) T.75-0490, 광진A 107/213
서준경(로사) T.252-8212, 현대A 101/1002
정규옥(요한보스코) T.253-6199, 광진A 106/1202
전영균(미카엘) T.254-5677, 동아A 108/401
 11. 독서 : 금주(새벽)①한병훈 ②박순희, 차주①최병래 ②손화례
(공식)①김병호 ②노재희, 차주①이철수 ②문복례
 12. 미사 안내 : 금주-가난한 이의 모후Pr., 차주-새별의 모후Pr.
- 지남주 봉헌금 : 1,627,990원 □교무금 : 2,043,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보여주소서.
◎새 성전 신축위한 목주기도 봉헌 : 소계-5,550단, 누계-300,643단
◎오늘 사회복지 주일 : 2차헌금 있습니다.

1. 모임 : ①요셉, 사랑화-오늘 공식미사 후
②사목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용머리 일꾼 피정 : 오늘, 치명자산 성당
3. 서품식 : 30일(목) 전 10시, 중앙 성당
4. 축! 종신서원 : 28일(화) 전 10시, 임동 성당
한미경(가타리나) 수녀님, 최숙자(글라라) 수녀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성서를 읽읍시다 : 금년 안에 신규약성서를 통독하기
①성서 녹음테이프 사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람(21만원)
②성서 통독 노트를 구입할 분은 사무실에서(1,500원)
5. 설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6. 청소년봉사 : 3구역 전체

□지남주 봉헌금 : 774,200원 □교무금 : 1,262,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보여 주소서.

1. 금주 모임 : ①대전회, 성모화-낮미사 후
②꾸리아-전 9시
③구역반장회-낮미사 후
2. 구역 미사 : 31일(금)-우성 근영 1반
3. 사목회 : 2월1일(토) 후 7시 30분
4. 차주 모임 : ①구역반장회-낮미사 후
5. 설날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 사무실
6. 신축헌금 신입현황 : 257세대, 5억4천9백3십3만원
7. 청소년 봉사 : 2월1일(토)-겸손하신 자의 모후Pr.
8. 교무금 신입현황 : 203세대, 8천9십2만6천원
※미신입 가정의 신임을 바랍니다.
9. 전입자를 환영합니다 : ①오재관(알렉시오)-화산2(A)
②서정용(스테파노), 박종환(유스티노)-우성근영

□지남주 봉헌금 : 925,000원 □교무금 : 721,00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F A X 223-3821 수 녀 원 223-3822 사목회장 이 병 선

◎금주 성서통독 : 마태오, 마르코 복음
◎오늘은 사회복지주일 : 2차헌금

1. 금주 모임 : ①구역형제회-오늘(일) 후 3시
②전례해설단-28일(화) 후 8시
③꾸리아-29일(수) 전 10시
④사목회-31일(금) 후 8시
⑤성모기사회-2월1일(토) 전 10시
2. 차주 모임 : ①선교특위-2월2일(일) 후 2시
②성체회봉사자-2월4일(화) 전 11시
③구역봉사자-2월5일(수) 전 10시 30분
④환자봉성제-2월5일(수) 후 2시부터
3. 유아세례 : 오늘 후 5시
4. 주의 봉헌 축일(2월2일) : 모든 교우가 예비자나 냉담자를 한 사람 씩 봉헌합니다.(대미사 봉헌시간에)
※제대초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에 접수 바람.
5. 예비자 교리 : 수요일-후 8시(청년, 직장인반)
목요일-전 10시(주부반)
금요일-전 10시 30분(노인반)
일요일-전 9시(직장인반)
6. 다음주 차(茶) 봉사 : 신일APT
※본당 발전헌금 봉헌자 : 최준호(안드레아)-칠탄, 김명진(스테파노)-십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남주 봉헌금 : 1,423,720원 □교무금 : 1,980,000원

효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F A X 226-1044 수 녀 원 223-0715 사목회장 김 규 완

◎성전 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소계-27,105원, 누계-626,982단
◎오늘 사회복지주일 : 2차헌금 실시

1. 금주 모임 : ①승리의 여왕Cu.,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저녁미사 후
③반회장 준비모임-31일(금) 전 10시미사 후
2. 주의 봉헌축일(2월2일) : 1년 기간동안 제대초 봉헌하실 분-사무실에 접수바람.
3. 성지가지 2월 9일까지 회수하오니 협조 바람.
4. 성령세미나 : 2월 17일(월)~22일(토)-분당, 전신자 대상
5. 설 합동 미사예물 : 선영을 위하여 미사예물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6. 신축헌금 봉헌자 : 김이화-3십, 이영가-1백, 이준수-5만
정정혜-3십, 박인수-1백, 임만호-1십, 김학동-1십, 여태구-1백
정순옥-2십, 이윤택-1십, 엄정준-3십
※소계-4백4십5만원, 누계-9억2천7백4십3만원
7. 폐품 수입 : 소계-29,600원, 누계-5,558,140원
8. 차주 : 천주의 모친Cu., 성소후원회 가입과 회비 접수, 여성분과회
9. 금주 전례 : 해설-이인숙, 독서-①우기도 ②배계향
봉헌 안내-강신호, 입애자 부부
10. 차주 전례 : 해설-이종표, 독서-①김영길 ②오순자
봉헌 안내-유영균, 강선화 부부

□지남주 봉헌금 : 1,607,330원 □교무금 : 3,118,000원